

전남 서부권

17억 들인 함평 홍지~매동마을 농어촌 도로

‘반쪽 개설’ 제구실 못한다

예산부족에 400m 연결 못해
잡초만 무성한채 9개월 방치



함평군이 개설한 홍지~매동간 농·어촌도로가 잡초만 무성하게 제구실을 못하게 방치되고 있다.

함평군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홍지~매동간 농·어촌도로(201호선)를 개설했으나 ‘반쪽도로’에 불과해 제구실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함평군은 16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동면 강원리 홍지마을과 상옥리 매동마을간 농·어촌도로 화·포장공사를 2009년 3월 발주해 2년만인 지난 3월 개설했다.

하지만 폭 8m의 이 도로는 총길이 1.7km가운데 중간 440m가 미개설 상태여서 전혀 이용할 수 없어 열악한 근재정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군은 6억여원의 예산부족과 모사찰의 반대로 도로를 연결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하면 도로정비의 주된 목적으로 ▲주민들의 원활한 농산물 수송과 주민소득 증대 기여 ▲세수(稅收)증대 ▲지역균형개발 및 경제활성화 도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개설된 지 9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중간이 끊겨 있어 차량통행과 주민들의 이용이 전무하다.

특히 강원리 홍지에서 진입하는 한쪽 구간(500m)은 보도블록 인도까지 설치돼 있지만 현재 잡초만 무성한 상태이다. 또한 도로 중간에는 10여개의 가로등까지 설치돼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함평군에는 비좁고 시급하게 정비할 마을진입로와 도로가 상당수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7월에 실시한 민선 5기 읍·면별 군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안길도장과 도로정비를 요구했으나, 군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군민 A씨는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선정해 사업이 이뤄져야 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직결돼야 한다”며 “시설이나 통행이 없는 곳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로만 개설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혈세 낭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앞으로 잔여구간 토지소유자들을 면담해 사업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매동마을까지 연결된다면 농·어촌도로의 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고 해명했다.

서부취재본부=황은희기자 hwang@

“공원·녹지 확보 ‘그린 목표’ 만족스럽다”

올 한해 목표시정에 대한 평가 결과 공원·녹지와 문화관광 분야는 크게 호전된 반면 경제·교통·교육 여건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포럼은 지난달 20세 이상 성인 남녀 288명을 대상으로 목표시정과 목표시의회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 목표시민들의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는 ‘좋아졌다’가 24%에 달해 ‘나빠졌다’(13.5%)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44.8%에 달해 긍정적인 답변보다 부정적인 답변이 6배가량 높아 경제난이 극심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반해 공원·녹지공간확보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가운데 5.2명이 ‘좋아졌다’고 답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 여건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에 비해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 관심을 끈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지난해의 경우 거주지별로 차이(중간시가지와 신도심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올해는 거주지별로 차이가 없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원도심에 대한 시장의 배려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목포시장이 일을 가장 잘하는 분야는 ‘지역문화 및 관광 활성화’(53.5%)였고, 가장 일을 잘 못한 분야는 ‘지역경제 살리기’(48.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목포시장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 58.7%가 ‘지역경제 살리기’를 꼽았다.

이와 함께 목표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도는 ‘관심 많다’가 18.4%, ‘관심 없다’는 39.9%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시정보다는 의정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시 의회의 역할이 일반시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거나 시의회의 의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목포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10.5%, ‘불만족 한다’는 응답은 33.8%에 달해 불만족 비율이 만족비율에 비해 3배나 높았다.

목포포럼 시민 288명 설문

“의회 의정활동 불만족” 34%

이어 목포시 정결결정에 대한 시의회 영향력에 대한 질문 결과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9.0%에 그친 반면 ‘주지 못했다’는 45.8%로 나타나 부정적인 응답이 5배 가까이 됐다. 이와 함께 시민 10명 가운데 2.2명은 시의원과 접촉할 경험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시 의회의 역할이 일반시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거나 시의회의 의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목포포럼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15일 목포 벤처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조사는 90%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0%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c@



목포목암지구 가로수 정비. 목포시 공무원들이 목암지구 가로수 수형(樹形)을 다듬고 있다. 목포시는 오는 21일까지 목암지구내 만나루 520주와 중앙분리대 해송 95주 등 총 615주를 정비할 계획이다. <목포시 제공>

목포대 사회복지센터의 지역사랑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질 높였다

목포대학교 사회복지센터(교수 권구영·이하 복지센터)가 도내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와 대내외협력,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지난 4월 설립됐다. 전국 대학교중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학교 조직에 센터를 설치한 것은 목포대 사회복지센터가 최초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도내 22개 시·군이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환으로 꿈들이 마을을 포함한 우리아이, 희망누리, 은빛건강, 아이꿈, 신활력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함께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앙 정부 및 지자체와의 협력 창구 역할 ▲개별 사업단 운영인력 및 조직의 통합 관리 ▲신규사업개발 및 지속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연구 ▲민간기관과의 협력사업 ▲기타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등 수행했다. 복지센터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아동·노인·정신장애인 963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인력을 대상으로 초기교육을 비롯해 보수교육, 사례관리 교육,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자살예방 교육 등 80시간 이상 교육기회를 제공했다.

자원의 연계 사업으로는 한국사회서비스 산업박람회와 2011 대한민국 통합의박람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미나 개최 등에 노력했다. 이와 함께 복지센터는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 대응과 양극화 심화로 취약계층 증가, 취약계층 보호 및 예방적 복지 필요,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사회복지센터 관계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출범 2년째 맞는 내년도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도약기로 설정해 내외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기본사업은 물론 특색사업 발굴에도 힘을 써 많은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해남군 건강관리등 보건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해남군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주관의 ‘201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 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과 포상금 1800만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보건사업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의료취약계층 7550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건강관리와 암 관리, 계층별 비만관리 사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임상부와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저소득층 노인인 대한 무료의치 지원 ▲치매 조기검진 확대 등 내실있는 보건으로 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해남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유아 예방접종 전액 무료지원과 저출산 대비 출산양육비 지원 확대 등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맞춤형 보건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완도군 금당면 가하리 정보화 마을
최신식 경로복지센터 건립

완도군 금당면 가하리 정보화 마을에 경로복지센터가 건립됐다.

완도군은 13일 가하리 복지회관 광장에서 김종식 완도군수, 조인호 의회부의장, 최환삼 군의원, 손형팔 금당면장, 권용주 노인회장, 진영희회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복지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군은 경로복지센터 건립사업에 총 5억3000여 만원을 투입했다. 이날 주민들은 완도군에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노령화 인구가 늘고 있는 섬지역 65세이상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경로복지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40개 마을에 최신 운동기구 등을 갖추고 사랑방 장소로 탈바꿈한 도서형 복지회관이 건립됐다.

가하리는 110여호(220여명) 규모의 전형적인 어촌으로 미역, 다시마, 전복, 고기잡이 등으로 살아가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호기자 ejchung@

신안 시금치 ‘섬초’ 소비 부진

10kg들이 2만5000원 거래 작년보다 20% 하락

신안군 비금면 명품 시금치인 ‘섬초’가 초기 저조한 작황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 14일 비금농협에 따르면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시금치가 웃자라 상품성이 떨어지고 잦은 비로 슬러나가는 등 파종 면적의 30%가량이 피해를 봤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10kg들이 섬초 한 상자 값이 2만 5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0% 하락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민기자 wncho@

비금농협은 하루 평균 3000여 상자 가 서늘 송과구 가락동 시장으로 출하하고 있지만, 예년보다 훨씬 물량이 적다. 비금농협 김충식 상무는 “시금치 초기 작황이 나쁘게다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섬초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면서 “기온이 내려가고 시금치 수요가 늘어날 연말부터 가격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민기자 wncho@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근린시설/원문 김태호전문이사 011-684-3886. 속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정현호이사 010-5879-0005. 아파트/빌라 박미란 팀장 010-9900-3002. 주책/재개발 양준혁팀장 010-3171-6536. 근린주책 김중현이사 010-8227-7759. 병원,교회,사옥,모델,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빠른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경매전문회사 직원모집] * 고객이익우선원칙을 소중하게 지켜갈 경력건설팀을 모십니다 상담 및 접수 236-3400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남지사열 유지빌딩 501 투자 및 사업용 토지.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부근 4,260㎡. 제2종일반주거역, 35m계곡도로 접합,매매가 3.3㎡당 110만원.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앞, 1,117㎡. 제2종일반주거지역, 매매가 3.3㎡당 300만원. ■광산구 소촌동 공무원교육원 옆, 6,600㎡. 제1종일반주거지역, 포경도로접합,매매가 3.3㎡당, 100만원. ■광산구 용동 지하철 차량기지 옆. 제1종일반주거지역,629㎡, 3.3㎡당 95만원. ■(금매)서구 화정동 터미널 뒷편,868㎡. 일반산업지역, 3.3㎡당 280만원,공시지가는 3.3㎡당,325만원. ■서구 치평동(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한국은행 뒷편 990㎡ 3.3㎡당, 590만원. ■서구 세하동 동화마을 부근,전, 2차선 도로접합. 1,035㎡(313평) (도로 77평포함) 매매가 4억 2000만원. 식당, 사무실,기타,적합. ■동구 소래동 대아아파트 부근,잠중지,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복개된 국유지 구거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전문식당직지,(보리밭,축염소,순두부등) 010-3616-8698. 062-233-2222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매매). ■토지600평건물4,000평(매가 210억) 보증금100억/월세5,000만원. ■토지950평 건물700평 (매가710억)보증금40억/월세3,000만원. ■토지200평 건물725평(매매가 32억) 보증금7억 월세 약 1,700만원. ■토지164평 건물약600평(매매가 30억) 보증금6억/월세1,700만원. 토 지(매매,상무지구) (회사사옥,병원,학원,기타부지 등) ■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유용기능사당양잠) ■833㎡(252평)-평당1,300만원 (상무지구)변화(사거리코너) ■1,980㎡(600평)-평당1,200만원 (상무지구) (유용기능) ■3,400㎡(약1,000평) 평당750만 원(시청앞) (회사사옥,오피스텔 등 적합) ■중립동 (생산녹지 운암~하남 간대로변)4,470㎡(약1,352평) -평당330만원 (예식장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립니다.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011-6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김장터 1층)

가은 부동산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대지면적: 980평 -매매금액: 45억 원 -용자금: 20억 원 포함 한의원/치과전전문병원 등 상무지구 빌딩 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 : 4억 3천 만 원 -용자금 : 10억 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증금5천만원/월 650만 -용5억 포함 -매매가 15억 5천 만 원 (현, 마트 / 치과) 상무지구 렌트피어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설분과 영일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들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동 대인동 상가건물내편)